

선악 판별하는 영물...용맹함의 상징 '검은 호랑이'

壬寅年-호랑이 이야기

위엄과 친근함 지닌 동물
단군신화·올림픽 '호돌이' 등
생활·문화 속 깊이 자리잡아
명예·권세·승리 등 상징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이다. 육십갑자의 서른아홉 번째 해에 해당한다. 천간(天干)인 임(壬)은 검은색을 상징하고 지지(地支)인 인(寅)은 호랑이를 뜻한다. 따라서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십이지의 호랑이는 방위상으로는 동북방향, 시간상 오전 3시에서 5시, 달로는 음력 1월을 지키는 신이다.

호랑이는 우는 아이를 꼭 그치게 하는 위엄과 담배 피우던 시절을 더듬는 친근함을 동시에 지닌 영물로, 조선 명종 때의 풍수지리학자 남사고는 '동해산수비록'에서 한반도를 가리켜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을 연해주를 활키는 모양새라고 해, 호랑이는 대한민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 또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부터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까지 줄곧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다.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예부터 호랑이는 흔히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나며, 인간을 수호하고, 선악을 판별하는 신동력 있는 영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현판이나 대문 등에 호랑이가 그려진 '문배도'를 붙여 잡귀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했다. 입춘날 대문 앞에 '범 호(虎)' 자를 크게 써서 붙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각종 민화와 전설·구전설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명나라와 청나라 등에서는 호랑이 이야기로 가득찬 조선에 '호담국(虎談國)'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실제로도 호랑이는 다양한 구전설화, 속담, 민화 등의 단골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네 생활과 문화 속 깊이 자리 잡은 동물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야생 호랑이를 본다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과 같이 까마득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옛 문헌에는 호랑이를 만난 기록이 적지 않다.

신라 진덕왕 때에 알천공(閼川公)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 땅에 매어쳐 죽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백제의 견훤이 어릴 때 호랑이 젓을 먹었고, 소년시절의 이성계는 호랑이 덕분에 재난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오동섭 작 '월하쌍호'

호랑이가 총 635회 나오는데 영조 27년(1751)에는 '경복궁 안에까지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많았다고 한다.

호랑이 유골로는 5-6세기에 백제에서 제작된 호자(虎子)가 전해진다. 호랑이가 입을 딸 벌리고 있는 형상인데, 남성용 소변 용기로 쓰였다. 고려 때는 석판이나 청동거울 장식에 호랑이가 묘사됐다. 조선 시대는 왕릉에 석물로서 호랑이를 세우도록 했다.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고사성어는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된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남을 홍보거나 뒷담화

를 해서서 안됨을 뜻한다.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회를 노린다는 뜻인 '호시탐탐'(虎視眈眈),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린다는 '호가호위'(狐假虎威)도 익숙하다.

이밖에도 호랑이 꿈은 길몽이다. 특히 호랑이에게 물리거나 호랑이와 싸워 이기는 꿈, 잡아 죽이는 꿈 등은 좋은 꿈으로 해석했다. 호랑이는 명예, 권세,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태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태몽 속의 호랑이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인격, 운수, 명예를 의미한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知天命의 壬寅年 운세



2022, 임인년은 흑호가 형승지지에서 극상의 위엄을 드러내며, 천하 만물을 향해 복선화음을 포효하니, 그 울림으로 삼라만상의 온갖 사악한 기운과 괴질이 소멸하리라. 신새벽의 여명을 헤치며, 휘황찬란한 서광이 비취오니 상서로움이 길조로 넘쳐 나리라. 올해의 태세를 사령하는 검은 범의 서기는 삼천리 방방곡곡 가가호호에 낙화처럼 쌓이며, 각개 만인의 운명을 참된 복으로 이끌어 대원을 성취케 할 것이니, 그 흥기가 융합되면서 급기야 가슴 벅찬 대동 세계를 이루리라.

子 36년생은 화창한 봄기운과 함께 백화쟁발이니 가는 곳마다 태평성대다. 48,60년생은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불우한 이에게 덕을 베푼다면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72,84년생은 기존의 체계와 질서에 순응해 나아간다면 무궁무진한 조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대희의 운로이니라. 96년생은 일곱 용이 승천하며 하늘과 땅에서 눈부신 광경을 연출하는 국량이니, 운로의 추이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丑 37년생은 천우신조로서 큰 행운을 잡으니 만사가 순조로우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돕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49년생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세상에 일신을 자연스럽게 내맡기는 것이 무리가 없다. 61,73년생은 누적된 경험과 숙련으로 인해 경복의 경지에 이르는 이치이다. 85,97년생은 매사에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과욕만 자제해 나간다면, 손색없는 성취를 하게 될 것이다.

寅 38,50년생은 현재의 고단함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다면, 행복지수가 배가되고 성과 또한 풍성하리라. 62년생은 새벽부터 먹이를 찾아 나서는 새가 주린 배를 채우듯이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물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74,86년생은 올해에는 특별한 기회가 빈번하게 주어질 것이니 기민한 감각으로 예의주시한다면, 포착하게 되리라. 98년생은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며 이행해 나간다면, 폭발적인 발전을 보일라.

卯 39년생은 제방 아래 개미구멍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핀다면 그 어떠한 재난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51년생은 축축한 비와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알맞은 바람이 알찬 결실을 기약하듯이 성실한 일상은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하리라. 63,75년생은 자신의 주관보다는 보편적 객관성을 기반으로 매사를 실행해 나간다면, 일에 막힘이 없고 진척 또한 빠를 것이다. 87,99년생은 전하를 비추고 있는 보름달이 풍요로움과 행운을 암시하니 큰 이익을 보는 운세다.

辰 40,52년생은 작은 일은 차치하고 큰일에 비중을 둔다면 실속 있는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64년생은 비가 오더라도 금세 멎으며 무지개가 뜰 것이니 만사가 순탄하게 전개되리라. 76,88년생은 책임 의식과 이타심 그리고 중용의 조화가 매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00년생은 산 높고 물 맑은 곳에 하늘마저 푸르니 심성 고운 사람들과 보람찬 운판을 이뤄내는 해가 될 것이다.

巳 41년생은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니, 튼튼한 기반과 호조건의 환경에서 순조로움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53년생은 남심대는 강물은 수로를 타고 넓은 논밭을 적시니, 적재적소에 인력과 원자재가 활용되어 대박을 내고야 말 것이다. 65,77년생은 처세의 기법, 자기 절제력, 용기와 임기응변이 필요한 해다. 89,01년생은 천지가 상응하며 축복해 주니 세력이 번성하면서 명예로운 일마저 겹친다.

午 42,54년생은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평화로움을 더하는 형태이니, 일한 후에 달콤한 휴식이 이어지리라. 66,78년생은 매사를 보류하기 보다는 즉시 실행하는 편이 유리하고, 단순 명료하게 내려지는 판단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90년생은 폭염 끝에 비가 쏟아지니 대지를 적시고 호수를 채우고도 남는 바, 고난 끝에 성공이 따르리라. 02년생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봉오리가 개화하는 대국이니, 살마리가 풀리고 본적의 서막을 열게 되리라.

未 43년생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피해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55년생은 웅장한 숲을 배경으로 늙지대가 놓여 있는 형국이니, 인간관계 속에서 상생의 활동을 도모하게 되리라. 67,79년생은 새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니, 골짜기의 잔설과 얼어붙었던 강물을 녹이며 흘러내리는 형국이다. 91,03년생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꿈꿀 수 있다면 금성첨화라 할 것이다.

申 44,56년생은 높다란 계곡 사이로 폭포수가 시원스럽게 흘러내리는 형국이니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다. 68,80년생은 광활한 창공을 가로지르는 고공 비행체처럼 그 행보가 역동적이고 강력하다고 할 것이다. 92년생은 쏘는 화살마다 명중하니, 경쟁이나 시험에서의 성과가 탁월하니 예상외의 활로가 열리리라. 04년생은 타고난 인내심에 더하여 조력자마저 나타나니 반드시 성공하고야마는 운세로다.

酉 33년생은 승천하는 용이 여의주를 머금으니, 뜻하지 않은 행운이 주어질 것이다. 45,57년생은 흑학과 따뜻한 햇볕처럼 위기와 해법이 공존하는 희귀한 판세라 할 만하다. 69년생은 세찬 바람이 불어와 항간의 온갖 사물들을 훑고 지나가는 형세이니, 구태의연함을 일소하고 신선한 기풍을 진작하리라. 81,93년생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한 폭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리 쬐는 형국이니 상이함이 특별한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戌 34년생은 음양오행이 상생 작용을 하니 쉽게 기반이 잡히며 생산적인 일이 증기할 수 있다. 46년생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여명이 솟구치는 순간을 포착한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8,70년생은 모진 풍상이 지나간 대지 위를 훑고 올라오는 새싹이 있을 것인 바 이는 우주의 순환 원리를 대변할 만큼 의미심장하다고 할 것이다. 82,94년생은 지난 세월에 비해 훨씬 격상된 운로가 전개될 것이니 대문을 활짝 열고 복을 맞이하자.

亥 35,47년생은 아름답기 그대 위에 길조가 날아와 등지를 들고 있는 양태이니, 안정적 기조를 닦을 수 있는 호기에 임했다. 59,71년생은 깊은 산 속에 사는 산토끼가 세상 구경을 나오면서 도약을 선보이는 격이니 여기저기에서 뜻하지 않은 길사가 연발할 수 있다. 83년생은 상대에게 베풀면 배가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니, 아낌없이 베푼다면 행운이 거듭되고 황재수마저 따르리라. 95년생은 봄비는 잔설을 녹이고, 풍년을 기약하는 청신호이니, 목표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드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